

국가별 동향



중국

털이 전혀 없는 '누드 닭' 中마을서 인기폭발



중국의 한 농장에서 기르는 닭이 몸에 털이 전혀 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농장에는 아주 '특별한' 생김새의 닭을 보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칭다오 라오산에 있는 한 농장에는 일명 '누드 닭'이 있다. 화려한 색깔의 깃털이 수북이 난 다른 닭들과 달리 생후 5개월 된 이 수탉은 온몸에 털이 전혀 나지 않아 허연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중국 언론매체들이 전했다. 농장주인 라오 옌은 "이 닭은 병아리일 때부터 몸에 털이 나지 않았다."면서 "생후 10일됐을 때부터 다른 병아리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다른 생김새 때문일까. 이 닭은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해 지금까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2~3kg인 닭들보다 몸집도 훨씬 작고 몸무게도 500g밖에 나가지 않는다. 닭은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우뉴스]



캐나다

공룡의 특징을 가진 닭 '치키노사우루스' 탄생

과학의 힘이 공룡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 캐나다의 고생물학자들이 닭의 배아를 이용해 공룡의 특성을 가진 닭을 탄생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 맥길 대학 진화연구소의 한스 라슨 박사 등을 비롯한 연구팀은 공룡의 유전적 특징을 닭에 합친 이른바 '치키노사우루스(Chickenosaurus)'를 만들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라슨 박사는 "닭의 배아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를 조작하면 공룡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연구가 발전하면 궁극적으로는 멸종한 고대 동물들을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닭의 유전자에 담긴 진화의 흔적을 조작해 조류를 파충류로 퇴화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라슨 박사는 연구를 위해 영화 '쥬라기 공원'의 기술자문이었던 미국 고생물학자 잭 호너 등과 팀을 이뤘다. 하지만 아직은 윤리적인 이유로 완전한 공룡을 탄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k뉴스]



## 자메이카

### 농림부 장관 계란 생산과정 시찰

계란 생산 증가와 농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자메이카 농림부 장관이 계란 생산과정을 시찰하였다. 농림부 장관인 로버트 씨는 “자메이카는 계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하루 48,000개의 계란을 처리할 수 있는 집하장을 둘러보고 관련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집하장 대표자인 잠베이씨는 “현재 계란 생산에 있어 안정성과 국제 표준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했으며 “농장들과 협력적인 회사를 키우고 더 많은 농장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The Poultry Site]



## 말레이시아

### 육계가격 고공행진

생산비 증가와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면서 말레이시아 육계가격이 치솟고 있다. 말레이시아 축산협의회 Abd Rahman Md Saleh 박사는 “평균 kg당 1.41달러(USD)이지만 현재 가격은 역대 최고인 1.79~1.85달러이며 Muslim Eid festival로 인해 가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변덕스러운 가격변동은 사료도 한 몫 하고 있다.”고

했다. 축산협의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육계가격이 안정을 찾기 원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에 뉴캐슬병 발병이 보고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요구하고 있다. [asian-agribiz]



## 터키

### 계란, 닭고기 생산량 증가

터키는 subgroup of NACE 통계회사를 통해 가금 산물 생산량을 매월 집계하고 있는데 계란, 닭고기 생산량이 2010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같은 기간 8.7% 증가하였고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3%가 증가하였다. 특히, 9,100만 마리가 7월에 도살되어 전월에 비해 4.7%가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에 비해 14.3%가 증가하였다. [The Poultry Site]



## 파키스탄

### 가금육 소비 200% 증가

파키스탄의 가금육 소비가 1999~2000년에 비해 200%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가 시작된 1999~2000년에 32,200만 톤이 소비되었으나 11년이 지난 현재 76,700만 톤이 소비된 걸로 집계되었다. 파키스탄 가금연구소 Mohammad Yagoob Bhatti 박사는 “가금시설에 대한 투자(34억 달러)와 농장 수 증가로 인해 소비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Asian-agribiz] 양계